



스위스재보험 2005 재해연구 보고 시그마 연구보고서 발간 :

재해로 인한 미화 2,300 억 달러 손실액 중, 1/3 인 미화 830 억 달러가 보험에서 담보

Contact:

Media Relations, Zurich
Telephone +41 43 285 7171

Aurelia Zanetti, Zurich
Tel. +41 43 285 2544

Clarence Wong, Hong Kong
Tel. +852 2582 5644

Thomas Holzheu
Tel. +1 212 317 5190

Korea Branch
Tel. +82 2 397 0304

Swiss Reinsurance Company
Mythenquai 50/60

뛰리히, 2006 년 2 월 24 일- 2005 년 각종 인재 및 자연 재해로 인해 97 000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. 스위스재보험 시그마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한 해 동안 약 400 건의 재해가 발생했으며, 이로 인한 손실액은 미화 2,300 억 달러가 넘는다. 손실액 중 1/3 인 미화 830 억 달러가 보험에서 담보 되었다. 2004 년의 경우 재해로 인한 보험 보상액은 미화 480 억달러로서, 2005 년은 손해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액이 가장 높은 해가 될 것이다.

97 000 명 이상의 사망자 발생

2004 년 12 월 발생한 지진해일의 피해 복구 작업 중인 아시아에 또 다시 대규모 자연 참사가 발생했다. 2005 년 10 월 8 일, 강도 7.6 규모의 지진이 카슈미르 지역을 강타했다. 이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73 300 명에 달하며, 이 중 72 000 명은 파키스탄에서 1 300 명은 인도에서 발생했다. 2005 년 한 해 동안, 재해로 인한 총 사망자수는 97 000 명이 넘는다.

총 2,300 억 달러 재산 손실 발생

2005 년 각종 인재와 자연 재해로 야기된 건물, 인프라, 차량 및 기업의 직접적인 재산 손실액은 미화 2,300 억 달러에 이른다.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손실액은 미화 1,350 억 달러로 가장 큰 규모였다. 허리케인 율마 는 미화 200 억 달러, 허리케인 리타와 데니스는 각각 미화 150 억 달러와 미화 40 억 달러의 손실액을 기록했다. 카슈미르 지진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약 50 억 달러로 추산된다. 인재로 인한 손실액은 총 미화 100 억달러로, 가장 큰 규모의 사고로는 2005 년 7 월 발생한 런던 테러와 1 월 캐나다와 3 월 미국에서 발생한 정유 공장 폭발 사고, 10 월과 11 월에 발생했던 프랑스 폭력 사태를 들 수 있다.

초대형 보험금 지급사고

2005 년 손해보험사에 청구된 보험금은 총 미화 830 억 달러이다. 이 중 미화 780 억 달러는 자연 재해에서, 미화 50 억 달러는 인재에서 발생했다. 미국과 카리브 해에서 발생한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액이 가장 많았으며

주로 미국에 상륙한 4 개의 허리케인 때문이었다.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보험 지급액이 미화 450 억 달러로 가장 큰 규모였고, 리타와 윌마에 각각 미화 100 억 달러, 데니스에는 미화 10 억 달러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. 2005 년 발생한 허리케인은 여러모로 기존의 기상 데이터에서 벗어나는 큰 규모의 재해로 기록된다 : 27 개의 폭풍우 (기존 기록: 1933 년에 21 개) 중 15 개는 허리케인에 버금가는 풍속의 위력을 가진 것이었다 (기존 기록: 1969 년에 12 개). 최초로 사피르-심슨 (Saffir-Simpson scale) 5 등급에 해당하는 허리케인이 3 회 발생했다.

유럽 또한 겨울 폭풍 어원과 여름 알프스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한 보험 지급액이 각각 미화 19 억 달러에 달했다. 인재로 인한 보험 지급액 미화 50 억 달러 중 가장 큰 규모의 사고는 캐나다와 미국에서 발생한 정유공장 화재와 대만과 말레이시아의 전자 부품 회사에서 발생한 화재였다.

AMO 온난 현상 기간 동안 강력한 허리케인 발생 빈도 증가전망:

허리케인으로 인한 보험 손실액 증가는 북대서양 지역의 AMO (Atlantic multidecadal oscillation) 온난화 현상과 관련이 있다. 온난화 현상은 1995 년에 시작되었고 10 년에서 30 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. 폭풍이 발생하기에 알맞은 이러한 기후 조건을 감안할때, 앞으로 더욱 강력한 허리케인을 초래할 평균 이상 강도의 허리케인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.

[사상자 기준으로 본 2005 년 재해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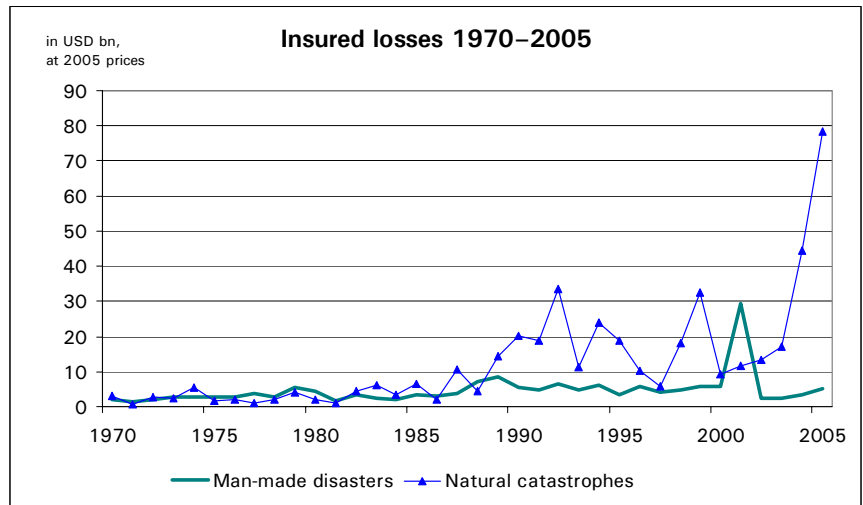
희생자 (사망자 및 실종자)	발생 시기	재해 종류	발생 국가
73 300	2005.10.08	카슈미르 지진 (강도 7.6)	파키스탄, 인도, 아프가니스탄
2029	2005.02.09	흑한, 눈, 눈사태, 댐붕괴	파키스탄
1 648	2005.10.02	허리케인 스탠; 비, 홍수, 산사태	멕시코, 과테말라 외

1 326	2005.08.24	허리케인 카트리나; 홍수, 댐붕괴, 정유시설 파손	미국, 멕시코만
1 313	2005.03.28	지진 (강도 8.7); 여진	인도네시아

[보험 지급액 기준으로 본 2005 재해]

보험지급액 (USD)	희생자(명) (사망자 및 실종자)	발생 시기	재해 종류	발생 국가
45 000	1 326	2005.08.24	허리케인 카트리나; 홍수, 댐붕괴, 정유시설 파손	미국, 멕시코만, 바하마
10 000	34	2005.09.20	허리케인 리타; 홍수, 정유시설 파손	미국, 멕시코만, 쿠바
10 000	35	2005.10.16	허리케인 윌마; 비, 홍수	미국, 멕시코, 자메이카, 하이티, 쿠바
1 887	18	2005.01.08	겨울폭풍 어윈; 홍수	덴마크, 스웨덴, 영국, 노르웨이 외
1 864	49	2005.08.19	알프스 지역의 비, 폭풍, 산사태	스위스, 독일, 오스트리아 외

Figure:



편집자 주

스위스재보험

스위스재보험은 세계 최대의 재보험사 중 하나이며 생명보험 부문 세계 1 위 재보험사로서, 전세계 30 개국 이상에 70 개 이상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. 스위스재보험은 1863 년 스위스 쥐리히에서 창립된 이래 지속적으로 재보험 사업을 영위해 왔으며, 자본관리 및 위험관리를 위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. 스위스재보험은 다양한 손해보험 상품, 생명보험 상품 및 관련 서비스 등의 전통적 재보험 상품과 더불어 보험 기반 기업금융 솔루션과 보완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의 종합적인 위험관리를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다. 스위스재보험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(Standard & Poor's)로부터 장기거래 신용, 재무건전성 및 무담보 선순위 채권 신용등급 'AA'(부정적 관찰대상: CreditWatch negative)를, 무디스(Moody's)로부터 보험금 지급능력 및 선순위 채권 신용등급 'Aa2'(하향조정 검토대상) 및 단기 신용등급 'P-1'을, 에이엠 베스트(A.M. Best)로부터 재무건전성 등급 'A+'(탁월)(부정적 검토대상)를 각각 부여 받고 있다.

1913 년부터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한 스위스재보험은, 1956 년 아시아 첫 사무소를 개설하고 현재 아시아 전역에 걸쳐 800 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다. 스위스재보험은 아시아 지역 본부를 홍콩에 두고 있다. 1995 년 한국 사무소를 개설한 스위스재보험은, 2001 년 지점 승인을 받고 광범위한 재보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

시그마 연구 보고서, *sigma study No 2/2006*, "Natural catastrophes and man-made disasters 2005: high earthquake casualties, new dimension in windstorm losses", 영어, 독일어판은 스위스재보험 홈페이지(www.swissre.com/sigma)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 프랑스어, 이탈리아어, 스페인어 판도 곧 발간 예정입니다.

Sigma No 2/2006 영어, 독일어판 책자는 지금 신청하실 수 있으며, 프랑스어, 이탈리아어, 스페인어, 중국어, 일본어판도 곧 가능합니다.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스위스재보험 한국지점(02 397 0304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본 보도자료의 영어, 독일어판은 스위스재보험 홈페이지(www.swissre.com/sigma)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